東亞日報

[illegible]

發行所 京城府太平通 東亞日報社

定價 一個月 金廿五圓

社說

統制經濟의 矛盾性 一

軍政廳物價行政處에서는 昨十五日부터 生必品의 一部에 對하야 統制價格을 實施하기로 되었고 그外의 生必品에 對하야서도 價格을 調停하기 爲하야 調査中이라고 한다. 一般的으로, 微溫的이고 消極的 施策을 取해오든 軍政廳이 가장 積極的 施策을 前提로 하는 統制經濟를 取하게된 動機를 살피건대 첫재로 昨年十月頃 物價를 標準삼아 作成된 軍政廳豫算으로는 現下의 物價高에 對處할 方途가 없다는 苦衷도 있겠지만은 둘재로는 天井不知의 物價高에 依한 國民經濟의 破綻을 匡正하자는 것이니 그意圖는 조타고 할지나 果然 統制經濟에 依하야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가는 檢討할 餘地가 있을 것이다.

二

國家의 豫算에 赤字가 날 때에는 稅金을 增收하거나 公債를 發行하야 補充하는 法인데 現軍政廳에서는 公債를 發行할수없다. 그理由를 追窮할 必要를 늣기지 않거니와 要컨대 積極的 金融施策을 强行할수없다는 點에 現軍政廳의 苦衷도 있으리라. 그러나 價格統制는 다만 이러한 豫算面에서만 必要하다는 것은 아니다. 天井不知의 物價高에 呻吟하는 國民全體가 그 錯誤없는 實現을 期待하는 바라 할것이나 問題의 焦點은 價格統制가 生産을 增强시킬수 있으며 同時에 統制價格이 順調롭게 實施될수 있을가 하는 點이다. 우리는 이미 日帝의 統制經濟에서 低物價政策과 生産增强과는 相互一致하기보다는 相互背反하야 經濟界를 混亂시킨것을 보아왓다. 現下 우리 形便보다는 多少 準備가 있었다고 할수있는 日帝時代에도 低物價政策은 生産의 相對的低下를 惹起하야 生産코스트는 引上되고 公定價格이 闇價格의 고리를 몰고 引上되지 않을수없으며 그럼에도 不拘하고 商品은 市場에서 자최를 감추고 闇取引은 더욱 盛해져서 國民生活은 더욱 窮迫해지고 마침내는 生産機關이 그 機能을 發揮할수 없게 되었든 것이었다. 都大體 統制經濟는 貿易, 生産, 配給, 消費, 金融, 勞動, 物資面, 資金面, 人的資源面 等 國民經濟全體가 有機的으로 綜合的으로 計劃的으로 準備되고 遂行되지 않는限, 그 効果를 期待할수는 없는 것이다.

三

經濟建設의 現段階에 있어서 더욱 軍政下에 있어서 上述한 바와 같은 國民經濟全體에 亘한 綜合的이고 計劃的인 準備가 如何되어 있을뿐 아니라 實施의 二大前提條件이 不充分함을 痛感하는 바이니 첫재는 統制經濟의 目標가 不分明함이다. 이것은 經濟建設의 現段階的 任務가 生産增强을 志向하면서도 結果的으로 生産減少를 招來할 것이 明確하니 이 矛盾에 依하야 그 目標가 分明치 않고 둘제는 統制經濟를 實施하려면은 廣汎한 國民組織 强力한 政治의 實踐性을 要求하는 것이니 統一政府가 樹立되지 않은 現狀에 있어서는 더말할 必要를 늣기지 않는다. 要컨대 統制經濟가 充分한 計劃과 國家로서의 全機能을 發揮하지 않고는 그 効果를 期待할수 없을뿐아니라 오히려 國民을 塗炭에 빠트릴 憂慮까지 있다는 것을 警告하는 바이다.

媾和會議와 弱少國의 要求

伊領『쏘마리랜드』等 『에치오피아』에 返還을 要請

【뉴욕十四日發AP合同】 AP時事論評家『학가』氏는 弱少國이 오는 廿九日에 巴里에 開催되는 歐洲媾和會議에 要求하고있는 바를 指摘 다음과 같이 論評하였다

西部歐洲와 阿弗利加에있는 弱少國은 巴里에서 開催될 歐洲媾和會議에 巨大한 經濟的要求를 提出할 것이다 이들 弱少國은 四大强國은 이要望하는 要求를 知悉하고 있다 이 要求中 一部分은 原則的 合議를 보고있음으로 다만 正式署名이 必要한것이다 그中의 한가지例는『에치오피아』이다 卽『에치오피아』는 半世紀以上이나 海洋通商의 出入門를 갓지못하였었고 四面陸地로 圍繞되여있었든 터임으로『에치오피아』는 十九世紀末葉 伊太利에게 掠奪當하였든『에리트리아』와 伊領『쏘마리랜드』의 返還을 要求하고 있는것이다 何如間 港口를 保有치않는限『에치오피아』의 經濟는 維持하여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伊太利植民地處分問題에 關한 四相會議의 決定에 對하야『에치오피아』王『헤일·세랏시』는 正義를 爲하야 猛烈히 反對하였었든것이다 現狀으로 보면『에치오피아』輸入品의 七十三%를 占有하는 綿製品은 結局『아덴』經由 佛領『쏘마리랜드』의『지부티』港을 經由하야 鐵道로 輸入하게 됨으로 그동안에 高價의 通過稅를 支拂케되어 輸入綿製品에 原價는 굉장히 비싸게되며 따라서 農民들은 購入이 不能한 狀態이다『뭇소리니』侵略에 對하야 失敗하였었든것도 結局 그 原因의 하나는 直接海港으로부터 戰爭物資를 容易하게 輸入치 못한데 있었다 또 農業國으로부터 工業國으로의 轉換過程에 있어서 國內獨逸財産 工業施設品을 賠償으로 計算하였으나 이것은 이미 四相會議에서 封印되고 말었다 그다음 白耳義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事情에 있고 또 和蘭도 工業國으로 轉換하기 爲하야 輸出에 重點을 두고있다

朝美貿易說은 虛報

나도 모르게 通商할수는없다

하지中將否定聲明

外電이 傳한 世界貿易會社의 對朝鮮貿易開始說에 關하야『하－지』中將은 十五日 다음과 같은 聲明을 發表하였다【寫眞은 하－지中將】

내가 關心을 가진바와 같이 朝鮮人들도 三十日乃至六十日以內로 美國會社가 朝鮮과의 貿易關係를 맺게되었다는 數日前 美國으로부터 온 報道에 對하야 關心을 가지고 있었든 것이다 이 報道나 流言은 어떤 美國報道機關에서 個人이나 團體의 談話에 依하야 傳하여진 것으로 朝鮮美國駐屯軍은 只今까지 南朝鮮貿易에 關한 이러한 事實을 正式으로 들은바도 없음을 確實히 말하는바이다 特히 오지음 話題가 되어있는 美國世界貿易會社는 朝鮮과 貿易하기 爲하야 許可願을 提出한일도 없고 이런 免許를 바든일도 없다 그러고 本司令部로서는 이 會社의 代表者들이 朝鮮으로 오고 싶다는 請願을 바든일도 없다

나는 南朝鮮에 어떠한 貿易關係가 매저지기前에 나와 반드시 相議하게될 것을 朝鮮人 一般에게 確實히 말하고 싶다 그러고 또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南朝鮮은 어떤 큰 商社나 獨占團體로 말미암아 搾取를 當하는 것을 許諾치 않을것이다 어떠한 貿易關係라도 모스코協定에 依한 朝鮮臨時政府樹立以前에 南朝鮮에 成立된다고 하면 그것은 軍政廳商務部나 軍政廳經濟委員會를 通하야 成立될것이다 그리고 그 成立目的은 다만 하나뿐인데 그것은 卽 朝鮮國家와 朝鮮人과 朝鮮經濟에 있어서 福利를 增進하기 爲한 것 뿐일것이다

李博士質問電

敦岩莊에서 十五日上午十一時 李承晩博士는 記者團에게 書面으로써 朝美通商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發表하였다

「스데거氏라는 이가 여러親友와 合同하야 商會를 組織하고 朝美兩國間의 輸入輸出의 特權을 어더 未久에 代表가 韓國에 到着된다는 報道가 있었는데 異常한 말은 그會社가 韓國의 貿易을 獨占한다는 條件이다 어떤 商會를 勿論하고 韓國의 商權을 어드려면 從來에는 韓國政府의 認許를 어더야 할 手續이 있을것인데 軍政에서 智慧로운 政策으로 이마 發表된 規則을 보건데 外國商賈들이 韓國에와서 利益을 圖謀함으로 韓國經濟力에 損害될것은 許諾치아니한다 하였스나 박게서 무슨 經營이 잇거나 只今은 軍政의 管轄로 우리經濟를 保護할것이오 以後 우리政府가 樹立된後에는 또 이와같이 할것이니 憂慮할바가 없거니와 獨權을 엇는다는 말이 新聞上에 報道된것은 實이 甚히 模糊함으로 내가 스레거氏에게 質問의 電報를 보내였다」(以下電文略)

四個條項을 建議

言論界不祥事에 對하야

新聞協會에서 軍政長官에게

朝鮮新聞協會에서는 最近 言論界에 對하여 일어난 不祥事에 關하야 지난 十三日 軍政長官에게 다음과 같은 要旨의 建議文을 提出하였다

親切 우리가 南朝鮮에 있어 美軍政을 協力하는것은 가장 기쁜일이다 美國『데모크라시』의 基本原則의 하나인 言論의 自由를 確保시키라는 長官의 軍政方針도 우리는 잘 아는 바이다 그러나 때로는 長官의 意圖하는바 言論自由의 眞意를 體得하지 못한 末端行政機關의 誤解로 말미암아 言論機關이 軍政을 協力하는데 支障이 생기는 수가 많음으로 以下 몇個條의 要求條件을 提出하는 바이니 長官은 깊이 諒察하야 言論機關이 從來보다 더 親密하게 同心協力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一, 犯罪事實이 確定되기 前에는 新聞記者의 身體를 拘束하지 말일

二, 軍政廳에서 特別한 重大發表나 新聞政策의 相議 以外에는 主筆編輯局長을 함부로 呼出하지 말일

三, 記事의 出處가 分明하고 또는 權威와 責任있는 個人 乃至團體의 意思 또는 政見發表한 것을 轉載하였을 때 그 責任을 新聞社에 追窮하지 말일

四, 記事採取와 自由를 確保시킬일

軍政廳出入記者團 러취長官에 陳情書

(前略) 建國의 大業을 지고 民族의 뜻을 받들어 發足한 朝鮮의 言論界가 草創當初에 處한 重疊한 難關과 多端한 實情은 貴下도 잘 諒解할것으로 밋는바이다. 創刊 또는 續刊된지 週年도 마치지 못한 朝鮮의 各新聞의 發展의 途程에서 犯하여지는 多少의 過誤는 (略) 迅速을 要하는 建設途上의 言論으로서 不可避한것이었다 (中略) 近日 朝鮮言論界가 當한 軍政當局으로부터의 몇々 干涉은 그 當然히 있을바 諒解와 援助의 乏은 姑捨하고 오히려 言論界의 活潑한 發展을 阻害하고 自由로운 民衆의 輿論을 萎縮시키는 彈壓的 傾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意圖의 如何를 不拘하고 本記者團으로서 最大의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中略) 屢次 記者團會見席上의 質問內容에 對해서 第三者 又는 警察의 容喙가 있음은 事實을 正當히 貴下에게 提示할수 없게된다

一, 九日에 自由新聞 大韓獨立新聞 人民報의 社長 主筆等 幹部를 麻浦虎列剌記事關係로 拘禁하였는데 (中略) 이는 言論機關에 對한 一大侮辱이라고 생각하는바이다

二, 解放通信 宋記者의 事件은 (中略) 公報部에서 忠告한 段階조차 없이 곧 警察이 留置取調까지 하게된 일을 甚히 遺憾으로 아는 바이다

三, 新韓公社 農地小作契約內容에 關한 質問者를 同社責任者가 呼出하야『그런 事實을 質問하면 우리立場이 困難하다』고 詰問한 事實은 우리 記者團의 質問에 對하야 지나친 外交干涉이라고 생각한다

四, 記事에 對한 些少한 問議件으로 (中略) 一々히 各新聞의 主幹을 公報部에 呼出하는 것은 程度가 지나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希臘王이 勳章授與

"아이젠하워"大將에게

【워싱톤十五日發AP合同】 美陸軍參謀總長『아이젠하워』大將은 希臘王『조－지』一世로부터 大十字勳章을 받었다 하는데 이것은『알바니아』出戰當時司令官이『아렉산다·파々고스』中將이 傳達하였다 한다

呼出時理由를 通知

最後의 責任者는 主幹과 發行人

러－취長官答辯內容

軍政廳出入記者團에서 提出한 言論界彈壓에 對한 陳情書에 關하야『러－취』軍政長官은 지난 十二日 公報部長『그린』中佐를 通하야 다음과 갈이 答辯하였다【漫畫는 러－취長官】

나는 七月十日 貴記者團이 提出한 陳情書를 受理하고 關心을 가지고 研究하였다 (中略) 나는 過去에도 貴團의 全質問을 取扱하였고 今後도 同一한 態度를 繼續할것이다 記者及新聞에 關한 事件이 있을때는 警察行動으로 옴기기 前에 公報部와 相議할것을 公報部와 警察當局間에 同意하였다 (中略) 나는 記者들은 이 記者會議에서는 最大限度의 自由가 賦與되도록 希望하는바이다 主幹及發行人을 그 新聞의 報道된 虛僞記事로 公報部에 呼出하는 데 關하야는 비록 一記者가 그 記事를 取扱하였으로 最初責任이 있었다 하드래도 發行에 對한 最後의 責任은 主幹及發行人에 歸結한다는 것을 銘心하기 바란다 그러나 그 責任은 代理를 派遣할수 없는것이다 將來에는 新聞社員이 公報部에 呼出當할 때는 그 呼出에 對한 理由를 通知할것이다

劇團 自由劇場 公演

卞基鍾 韓一松 朴孤松 李象伯 金鐵 白寅 安冲 李傑 朱善泰 宋海天 朴芸正

金仙草 陳娘 黃貞順 金貞玉 千裴丹 具玉姬 徐點倫 岩榮善 沈嗣壽

國際劇場 15日부터

栗谷과 그어머니 3막6장

作……宋影 演出……安英一

裝置……金一影 照明……李演鍾 小道具……柳順萬

衣裳……朴順伊 舞台監督……韓啓源 音樂……朴榮根

二層開放

特設 그·릴

大小宴會應需

서울市明治町二丁目四八番地 明治座앞(舊마루비루)

電話本局 1896·6960番

高級社交場 문파레쓰

暴風的人氣!

朝鮮獨立血鬪史

姜與秀著 四六判·洋裝美本 값三十五圓

從來의 다른 獨立運動史에 比類할수없는, 가장 充實한 內容을 가장 要領있게 收錄한 獨立運動史의 決定版! 海牙密使事件으로부터 二重橋爆彈事件에 이르기까지의 悲恨한 獨立血鬪의 記錄과 倭政虐殺의 全貌!

서울市太平通二丁目一番地 高麗文化社 電話本局八四〇二番

東洋工科學校生徒募集

一、土木科, 機械科第一學年初級(晝間·夜間)各科各六〇名 上級補缺生 若干名

二、出願期日 七月二十五日까지 (晝用電光 三〇三二 夜用電龍山 二八六九)

詳細來問

京城府鍾路區觀水町一二〇 (前和光學校跡)

大新農業學校生徒募集

初級中學第一學年生 約一〇〇名

二、三學年補缺生 若干名

試驗期日 七月廿五日부터 出願期日 同廿三日까지 七月二十日까지出願

交通, 西大門外靈泉행뻐스通行

郵便物, 西大門郵便局私書函二十一號應用

京城府西大門外恩平面佛光里 電話光三七八一

京城工科學校生徒募集

土木科 建築科 第一學年 約百十名

各科上級 第二三年 約六十名

補缺 若干名

京城府鍾路區社稷町三一一 電光一八四二番

出願期日 七月十九日午後五時까지

試驗期日 七月廿·廿一日 用紙本校出給要三圓

李儁烈士의偉業을追慕

四十周年追念式을嚴肅히擧行

四十년전화란(和蘭)해아(海牙)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에나아가됨제에짓밟피는 국권을회복하려다가 뜻을 일우지못하고 만국사신이모힌 자리에활복자결하야 선혈로써조국의억울함과 자주독립을절규한 고리준(李儁)열사의거족적 추념식은 해방후처음으로 十四일하오두시부터 경운정천도교당(天道敎堂)에서 혁명원로와 각계인사 다수참집한가운데 김법린(金法麟)씨사회로엄숙성대히집행되였다 이식은식장정면에 열사의사진을내어걸고 고려교향악단의 엄숙정중한주악으로비롯하여 홍명히(洪命憙)씨의 식사에이어 이열사의서랑되는 유자후(柳子厚)씨로부터 열사의살신성인(殺身成仁)한피의여사를보고하여 만당에모힌사람에 다시금감분을자아내었고 리영(李英)씨의 추염문(追念文)랑독과 정백(鄭栢)씨의해아사건전말(海牙事件顚末)보고가있은후 경성음악학교합창대의추염가합창이있었다 이어서일동은 경건한묵념(默念)을드린후이승만(李承晩)박사 김구(金九)총리를비롯하야 장건상(張建相) 성주식(成周寔)씨등의 줄허를으는추념사가있은다음 홍명히씨로부터유가족에게위문품을진정하고 고열사의장자 이용(李鏞)씨(현신한민족당총무)의답사로동五시지나 식을마치었다【사진은추념식장】

쌀·보리卅餘叺押收

九名檢擧、謀利輩掃蕩의첫戰果

"各署의檢索作業"은繼續

百二十萬서울시민을울리는 쌀중간모리배를 소탕하고저 十四일은 일요일인데도 불고하고 경기도경찰부 식량사찰본부최(崔)차장이하, 관계관과 지방검사국엄(嚴)차석검사가직접가두에 진출일선지휘로서 취체를단행하였다

이첫날의수확을보면 동대문서 관내에서 중간모리배七명을검거하고 백미十三가마니三두와보리二十가마니를압수하고 성북서에서는 二명을검거취조중인데 압흐로도 계속활동할터이다 이들은 주로「되가기장사」로四百원에사서 四百七、八十원에판배하는 악질모리배로판명되였다

失職貧民에게食糧

市서無料로配給實施

十五日부터

돈없고식량없어굶주리는시민을위하야 서울시청에서는十五일부터 세궁민에게 각인보관을통하야식량을무료로급여하는한편대중식당을늘리기로되었다

즉 돈이없거나또는 돈이잇드래도 식량이없이 굶주리는실업자는 남여노소를막론하고 각거주구청에보고하면 각구청에서는철회를통하야 조사한후一인에대하야 一일평균백미잡곡등 二畓과국수민군건조겨란을 인보관으로하여금十五일분식 무료로 급여하기로되었다

그리고현재五개소의 대중식당을十개소로 늘리기로되었다

大韓勞總聯盟 朝皮分會結成

조선피혁(朝鮮皮革會社)공장종업원일동은十二일조피대강당에서 대한노총조피분회결성식을 성대히거행하였다

水害同情金

女子國民黨에서 劇場을利用募集

여자국민당에서는 수해동포를구원하고저 지난十一일부터三일동안 시내十四곳극장에서 막간을이용하야 동정금을모집하였든바 五천여원이나모였음으로 이사업을계속하기로되였다

春川에는農科大學

各道마다大學設置를準備

문교부에서는 九월부터의서울대학교 설치와아울러 압흐로는 부산(釜山) 대구(大邱) 광주(光州) 춘천(春川) 대전(大田)등도 각지구별로 지방의여론에따라 국립대학을설치할복안을가지고 一현지와 절충연락중에있다 이춘천에서는 농과대학을세우고저 기금이모집되었다하며 대구 또는경주(慶州)에서도 만흔금액이 모여기초가 튼튼한대학설립에박차를가하고있다

國立서울大學校

設立에對하야(文敎部發表) ②

上記한바와같은 綜合大學校를 新設함에따라左記하는바와같은 利益이있다고생각한다

一、綜合大學校를만듦에依하야 各學校의既存建物과設備를 最大限度로活用할수있다。 어떠한貴重한設備같은것은한獨立한學校의所屬이되었는까닭에 一年에몇번박게使用되지않고있는反面에 다른學校에서는이設備가없서 充分한教育을하지못하는事例가있다 이러함으로든設備를 綜合大學校의 所有로한다면 上記함바와같은矛盾이없이 全敎授、全學生이利用할수있는 有用한것이될수있을것이다。 더구나今日과같이 物資難으로當分間重要한教育設備를求할수없음에 鑑하야 이必要를痛感한다。

二、敎授의其他 專門技術者를 最大限度로活用할수있다 우리에게는極히적은數의 有能한敎授와技術者가있다。우리는 이들을 가장能率的으로活用하여야한다 例를들면 어떠學科目에는 資格있는敎授가 一、二人의不過하다。이러한貴한存在를一專門學校나 單科大學에두는것보다 綜合大學校의 敎授로두어十分活躍할機會를주어야할것이다。

三、國家財政上 으로보아 合理的이다 一定한計畫下에統一的으로運營하는것이매 國家財政으로 가장有効하게쓸수있을것이다거기에는二重、三重의設備로말미암은金錢의浪費가없을것이며人件及一般行政的費用에多大한節約이있을것이다 그리고가튼建物과設備를最大限度로活用함에의하야 現在보다數倍의學生을收容할수있을것이다 그國家에주는利益이財政上으로보드라도 莫大한것이될것이다 따라서 그節約한經費를다른高等敎育機關建設에쓸수있는一石二鳥의利益이었는것이다(계속)

光復軍을慰安

女子國民黨에서

여자국민당(女子國民黨)에서는十六일상오十시부터창덕궁비원에서그간귀국한광복군(光復軍)장교위안회를연다는데 참석예정장교는八十여명이라한다

淑明女專에 任淑宰氏就任

숙명녀자전문학교에서는 교내기구를정돈하고교장으로 임숙재(任淑宰)씨를마지하기로되어十七일상오十시동교에서 교장취임식

호열자防疫에 各道에一千萬圓

보건후생부에서는 호열자방역예산을 五월초순에一억四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우선제一차로一千여만원을 지난二十七일각도에분배하야 경기도에一百二十七만원 경북도二百만원 경남三百만원 전남百만원 전북一百二十二만원 충북五十만원 강원도에百만원을 각각송금하였다

尊重하자"太極旗" 國旗宣揚會創設

오래동안이젓든 우리의국기태극기에대한 숭배심과 존앙열을앙양하며 그바른취급방법을널리보급하고저 국기선양회(國旗宣揚會)가 이번유지들의발기로창설되었는데 회장은백남기(白南祺)씨다

白泉韓仁鳳氏

(前本社々員)백천 한인봉씨는 十四일 이준(李儁)열사추념식의 마튼일을 마추고 미아리五四一의七자택에 돌아와서 심장마비를이르켜 동八시경 별세하였는데 十六일 오후三시 미아리 장제장으로 발인하리라한다

罪에우는少年들

開城少年刑務所訪問記(上)

순진하고난만한어린이세게에도 영오의몸이되어 어두운감방에서 한밝은 그날을보내고있는 알구진운명ㅣ이러케「죄」에우는 소년들을차자서울제관소즙입기자단은 개성(開城)으로소년형무소를 차진것이다

解放後날로 느는少年犯罪

光明을찾는六百餘名의어린罪囚

충신 정몽주(鄭夢周)선생의 붉은피가아직도어리어있는 선죽교(善竹橋)를지나 약五분동안걸임면 다다른다 정면현관아페는 흠흉한정원이있고 공기도막다 위치와환경이 절호하다 이곳이소년형무소이다 一九二一년경성감옥 개성분감으로설치되었다가 一九二三년 부령으로승격됨아래 어두에서광명을차저그생애에다소의수련을받으려고 이론에드나는소년들은 그얼마이든고ㅣ 돌재번철창을뚫어서나양편에 굿게문이다친 감방이있다 三、四畓의 소년수를수용하는 남사로(南 (會寮)이다。 이곳형무소에서는 죄수가형기를 맛는몽안 그개심상태를 보아 一、二、三、四畓으로 나누어취급하되 성적이조흠수록 대우를개선하고있다 이三、四畓어면 취업성적이다 적선료(積善寮)가정료(家庭寮) 작업장의료실등 모다 정돈되여있다 게원의말을들으면 두가다두뇌가 조흔데다가 소년이기때문에 기억력이강하야 기술적작업은 성년보다 협신 수월수월게 배우며 또한순진하기때문에 가르키는대로 잘이행하야 능률은거의 백퍼ㅣ센트를 올리고있다 한다

(鄭鎭奎特派員記)

水害義捐金品 本社取扱

貯蓄한三百圓

청운국민학교 朱賢俊君寄託

『적으나마이것을수해로 학용품을일허버린동무들에게 보내주시오…』ㅣ시내 서대문구부암정(付岩町一四三)에사는 청운(淸雲)국민학교 一년생주현준(朱賢俊)(九)군은 학용품을절약하야 돈이모앗든 벙어리를에몽온 돈三백원을털어十一일본사에 수재민의연금으로 기탁해왔다

◇十二日現在本社事業部取扱
▲金壹千圓也 丸宮實業株式會社社員一同
小計 壹千參百圓
累計 拾萬四千九百參拾八圓六拾錢也

(七月十三日現在本社事業部取扱)
▲金三百六十七圓也 大昌組車夫一同
▲金九圓也 中央高女追加分
▲金二千一百五圓也 安餘三玉製工場男女從業員一同
小計 貳千四百七拾四圓也
累計 拾萬七千四百拾貳圓六拾錢也

春秋樂劇團 中夏大公演
사랑과죽엄 바라에틔 (사랑과愛情은무엇인가?) 二十景
7月17日부터 5日間 優美館

需要業者諸賢에게
今般弊社製品「建築用다ー후레트」는 軍政廳物資統制規定에依하여 京畿道商務部産業課에서需要業者에게優先的配給을하오니 必要業者는同産業課나又는弊社로問議하시기바라나이다
京城市龍山區漢兵町一〇一番地
合資會社 三鮮會
電話龍山㊂二一七〇番
支配人 趙尙俊

一、南鮮特産竹製工藝品 高級合竹扇、太極扇、其他各種扇子、門발、竹皮방석、참빗、바구니各種
二、베니야合板 三、海産物各種
直輸入 都賣商 三千里商行
서울市敦岩町二六六의一五 電車終點
電話東局九五七番
特約販賣店募集
貨物自動車 遠近運搬取扱

最高級洋酒 絕對好評인 高麗부란듸
軍政廳製造許可品 軍政廳化學研究所檢査濟
◎注意 無許可品부란디! 品質나진부란디!!
製造元 朝鮮製藥工業株式會社 釀造部
開城府滿月町七五四番地 電話開城局一五〇〇番
朝鮮製藥工業株式會社京城支店 京城府中區長谷川町一二一番地 電話本局②五九四六番
總販賣代理店 一信産業株式會社 京城府中區長谷川町一二一番地 電話本局②四八四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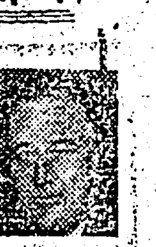
最新式靈柩車
朝鮮式各種葬禮는 여러분의 京城葬儀社
高級靈柩自動車 高級靈棺送衣 其他一式具備 式場花環新式黑白幌燈販賣
(서울) 主 高鳳天
서울市旭町一丁目二〇二 (朝鮮商業銀行左側越便)
電話本局② 一五六七 四二四二番
(隨地方出張)

吳鳳煥大人參判公正根氏以宿患七月十五日午前二時於仁寺町一二〇自宅別世玆以告訃
一、發靷 高陽 七月二十一日午前七時
一、葬地 龍仁郡南四面完長里先塋
嗣子 孫 姪 護喪
鳳 龍麟 世升玹
煥 澳漢 忠煥 宮
(個人訃告省略)

自主經濟의急務

四百年間覊絆에서解放

新興比島의展望



太平洋西端의 弱少民族比律賓은 一五四二年 西班牙領有로부터다시 一八九八年美西戰爭을지나 美國屬領으로되었다가 民族桎梏四百四年만에 今年七月四日 新興比律賓國으로서 民族自決의 原則을 具現하였고 또自主獨立國으로서 世界平和建設에 一翼을擔當하게된것은 太平洋의安定을爲해서 劃期的意義가있을뿐아니라 國際憲章精神에依한 弱少民族解放의 實現이라는點에있어서 歷史的事實이라고 아니할수없다 그러면 新興國比島의 今後方向은 무었이며 따라서 美國의太平洋政策은 어떠한가 그러한問題를究明함으로써 太平洋諸民族의 明日을卜하고 三千萬民族의 今後發展을圖하는데 한個의資料가되지않을가 생각한다 (寫眞 上으로부터 루大統領, 라이딩스上院議員, 아기날도將軍, 케손議長)

比律賓의過去

太平洋西端에 散在한七千八十三島嶼로써 形成되었는데 總面積十一萬五千方哩 人口 約一千三百萬 比島人은 大體로 馬來人種의 血液을만히 바든種族으로서 思索的熱情的이다 「마제랑」이 一五二一年比律賓을發見한後 三百五十六年間 西班牙領屬下에잇엇고 一八九八年五月一日 「아드미랄·주웨이」提督의 美國艦隊가 西班牙艦隊를 「마닐라」灣에서擊破하는同時에 海外亡命의 「아기날드」將軍獨立運動을援助한다는 約束下에美比協力으로 西班牙帝國의鐵鎖를 끈헛든 것이다 그러나美國의 「獨立約束」은 水泡化하여서 同年十二月巴里會議의 美西協定에依하야 美國의 比島領有가決定되엇다 「아기날드」는獨立軍을 비롯하야 比律賓民族은 激昂하엿다 그리하야 美比開戰이되엇으나 比島人은 美國의相對敵이될수없엇다 一九〇二年美比戰爭은 드듸어終을다햇다

美國의對西宣戰布告는領土獲得의目的을가진것이아니라 砂糖產地「쿠-바」를 西國虐政으로부터 救出하자는것이라고 史家들이傳하느니만치 美國의比島統治는 西國에比하야民好하엿고 特히比島人에게 「워싱톤」의 自由思想을傾注하야 「아메리칸」生活樣式의 民主主義教育을實施하엿다 그리하야美國統治下四十年의治績은 西領三百五十年間의그것에比하야 훨신優秀하엿다한다

熾烈한獨立運動

「아기날드」擧兵失敗後比島獨立運動의中心勢力인國民黨은武力抗爭에서 言論戰의合法運動으로表面上轉換한것갓치보엿으나 一九〇二年吕宋島平定後에도各地에서小規模의反亂이續出하엿다 特히一九二三年及其後三四年間比島獨立派는 「우드」總督에反抗하야 그의召還으로要求한時代와갓치外形的으로猛烈한때는없엇다 美國共和黨政府의功利的植民政策이 고무等熱帶產物의必要와 日進月步의極東貿易의據點 及軍事上理由에依한 「比律賓獨立時期尙早」라는困難한環境에잇음에도不拘하고 一九三四年五月 「라이딩스·막더피」獨立法이美國上下兩院을通過한것은 比律賓民族의鬪爭의勝物인同時에 民主主義國家美國의傳統的太平洋外交政策의一端을解釋할수잇다

米外交政策의變遷

一八九八年美西戰爭을契機로 當時全盛時代이엇든 「實業의政黨」리퍼블리칸黨의國內政策은 自由放任主義인同時에 產業助長을爲한 補助及保護關稅의政策 對外的으로는 海外市場獲得 通商路確保及大海軍의建設等이엇다 卽國內的으로는 產業革命을完遂하면서 大產業資本國으로서의形態를가추어 國際的으로經濟膨脹政策을取하야 世界的强國의地盤을 確保하는데있엇다

美建國以來 이러한思想系統의 代表者는 「해밀톤」을비롯하야 「크레」 「웹스터」 「스보드」 等의 「리퍼블리칸」系의 政治家들이요 海軍軍人政治家로서는 「페리」 「듀웨이」의 兩提督이 代表者일것이다 十九世紀末葉의 「마킨레」 「루스벨트」 「美지」等은 모두 이政策의 强力한 遂行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對外膨脹政策은 美國뿐아니라 歐洲列强이 競爭的으로 海外市場開拓에 血眼狀態이었든 것이다 一九一二年 美革新主義의戰士요 民主黨의復興者「윌손」大統領이就任하자 對外政策에도 影響이 甚大하였다 그는大統領就任演說에 「美國은 比島獨立을目的으로한다」라고 言明하였고 一九一六年八月美國議員 「윌리암존스」氏의 提出한 比島獨立法案이 美議會를 通過하였다

新興國의今後發展

比律賓獨立支持의歷史를가진 民主黨「루스벨트」大統領時代에實現된比島獨立의憲章 「타이딩스·막더피」獨立法의骨子는

一、獨立政府(臨時政府)成立日부터滿十個年經過後最初의七月四日(美國獨立紀念日)에獨立을許可할

二、獨立과同時에比島內에있는陸軍用地其他 美國政府의一切所有權、監督權 司法權、管理權 又는統治權을撤廢할

三、海軍用地及燃料補給所에關해서는 美大統領은 獨立許可後二個年以內에比島政府와協商함을得함 그때까지는現狀維持로할것等이다

그러나砂糖業者 고무 椰子油工業에投資한 美資本家들은 今年(一九四六年)七月四日에 比島獨立實現에도不拘하고 今後八年間은從前대로 比島商品의對美輸出에 關稅免除하고 그後二十年間에 漸次累進的으로 課稅한다는特典을 밧게되엿다 이것은 一方으로 比島投資한 美資本家를 保護하는同時에 갑자히襲來하는 比島人의經濟的打擊을 緩和식히는方便이다 이에對하야 比島人은 「獨立은弗의問題가아니다 精神問題이다」라고한것은能히 그決心이壯하다고 아니할수없다 일즉이「케손」氏는「自由없는產業보다 自由잇는苦楚를願한다」라고 絶叫하였으니만치 對美依存의商品市場으로서의 昔日의面貌를一新하야 自主獨立國으로서의經濟建設에 努力하지안흐면 안될줄안다 이에關聯하야近日 外電에依하면 美共產黨機關紙「데일리·워커-」紙上에는比島獨立에對하야 다음과가치 許하엿다

「比律賓은 事前에 美國議會를通過한 二法令을受諾하지 안흐면안되엇다 이法案은 比島의工業地를 阻害할뿐아니라 最少二十八年間은美國의强力한 獨占企業에對하야 特權을 賦與할것이다」

이것은 어느程度의 眞實性을 把握하엿는지 알수없으나 四百餘年間 外國覊絆下에서 特히高度로發達된 美國生活樣式에 저라난 比律賓民族의 經濟力은 「움속에서 자라난나무」갓다서 當分間(三十八年間)對美依存의經濟生活을 繼續할수박게없을것이다

外眼에비친朝鮮의姿態

燦然!三一運動은 朝鮮人能力을世界에明示

美誌에揭載된 國際通信社東京特派員허워드·핸플먼氏는다음과갈은 朝鮮政局描寫를紹介하엿다

朝鮮民族은『東洋의愛蘭人』이다 朝鮮人은表現을조아할뿐아니라 그대로實踐하고있다 朝鮮人은말이만코 經濟하다 頑强한火田民과農民들은 權利를絶叫하며 理念을爲하야暴動을이르키어 때로는示威行爲로써 懿憤을披瀝한다 그런故로朝鮮人은 어느東洋民族보다 활신民主主義에對한準備가되어잇다 全民族을戰爭과廢墟로 떠러트릴지언정 日皇의命令이라면 抗拒할줄몰으는日本과는달라 四十年間倭政下에있으면서도 朝鮮民族은完全히 征服되지안헛든것이다 朝鮮人은滿洲山岳地帶의『게릴라』部隊와連絡하고저『地下鐵路』를가젓다 假令一九三六年의一年間에倭人을殺戮하기爲하야 鴨綠江을中心으로三千六百面以上의 戰鬪을敢行하여왓는데 이것은日本人側의記錄이다

◆…◆

一九一九年에朝鮮人이展開한地下運動의示威는世界가다認定하는가장模範的인것이엿다 定日定刻에京鄉各地의모-든朝鮮人은 各其職場을지히고 감추어두엇든自己네들의國旗를휘둘렷다 倭政은全然事態를豫期치못하였다 屍山血河의彈壓으로이暴動에報答하였다 그러나朝鮮人은 綱鐵갈은意志와優秀한能力을이機會를通하야 世界에明示하였다 어떠한方法으로朝鮮人들이서로連絡을取하엿는지倭人들은알수없었든것이다

◆…◆

一九一九年의 發揮한精神은 獨立을爲하야 猛進하는今日의朝鮮에 아직남어잇다 그네들의前途에는세로운難關이가로노혀있다 卽國土를美蘇로兩斷해버린〃포츠담〃方式은 克服할수없는經濟的障壁을만들고말엇다 이는또한政治的으로 南北分裂을釀成하야 北에는左翼、南에는右翼이 各々활개를펴고있다

오랫동안夜間通行禁止令이 實施되엿다 占領軍과의交獄은 日本보다훨신制限되어있다 이것은朝鮮人自體의 嚴格한道德을參酌한까닭이라한다

◆…◆

政治的으로朝鮮은左右두갈래로갈려저잇다。往年反日『데로』의英雄的指導者로서有名한金九氏와 三十三年間華盛頓에서『亡命政府』를이끄러온 李承晩博士가右翼의最高指導者다。南朝鮮의左翼이라면 共產黨과人民黨이있는데 其指導者는米國서도모르고 朝鮮서도잘알여지지않은사람이다 北朝鮮에서는朝鮮共產黨北朝鮮支部가行勢하고있으며 其首領은朝鮮人의다잘아는金日成將軍이다 金將軍은 多年滿洲山岳地帶에서 倭政과싸워서國民的英雄이된것인데 兒孩들까지 진치고놀때 흔이將軍의일음을부른다 右翼에서 金將軍은벌서죽엇으니 蘇軍과같이있는金日成氏는『엉터리』라고말하고있다 左翼에서하는말은 平壤에있는 그人物은眞正한『게릴라』首領인同時에 大衆이支持하는自黨의큰希望이라는것이다

◆…◆

現在經濟政策에는 左右何等의懸隔은없다 日本人이남기고간八〇%의 農土를 國有化한다는點은同一하다。이것이朝鮮의가장큰經濟問題라고하겟다 工業朝鮮은 當今幼稚하나 半島를貫通하는鐵道가있고 北鮮에는 山岳地帶에서引出한강大한電力이있다

左右合作을支持

政權樹立後에信託은論議

輿論은이러타

【問】左右合作의先決條件은무어인가

左右合作交涉에對하야 各方面의意見을들어 大衆의輿論은 果然어떠한가를讀者여러분에게 알리고저本社輿論調査局에서는 다음과같은設問을發하야 輿論을調査하엿다

左右合作의成功을바란다 먼저政府樹立한後에 信託問題를論議하는것이妥當하다 **沈亨弼氏**

左右分裂의最大原因이信託과 比率問題인데 信託問題는 臨政樹立後에 提起될問題임으로信託與否와比率問題로 合作을進行시키고있는 此際에話題에 올려 合作의前途의 阻害가없도록할것 **安在鴻氏**

李允榮氏 南北을一貫한合作이어야될것 卽時獨立을 前提로한合作이여야될것 南北을通해民主主義的愛國者釋放을 條件으로해야될것。

兪億兼氏 信託問題는 臨政樹立後의 問題아니냐 今信託에 關한見解를固執하야 合作을遲延시키지말것이다

白寬洙氏 韓國의完全自主獨立을目標하고謙虛한態度로나가면至今까지介在한難關은容易하게技術的으로解決될것이다

洪性夏氏 感情을超越한行動統一로理想實現을當分間保留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無原則한合作을爲한合作과各自의 主義政見을抛棄하라는것을 말함은아니다 祖國愛의一念으로原則을삼으라는것이다

李勳求氏 民族과國家를爲하야 政治的野望을버리라 政界의各指導者들은 一身의榮譽를爲하야 民族을저버리고 祖國을放棄엿다는것을 銘記하여야할것이다

李秉岐氏 自主獨立一路로나가라 一切의政論은 技術的인問題로서 잘調和될것이다 民意와가치共路파가치!

白南雲氏 첫재反動分子의除外이다

金秀學氏 自黨의偏見을是正해야한다

金應九氏 親美親蘇精神으로나가야한다

吳洛善氏 各自의偏見을버리고統一政府樹立에邁進하여야한다

高義駿氏 三相決定服行이라한다

安鍾達氏 他力依存思想排除와政治野欲의排擊을해야한다

合作支持가多數

信託問題는政權樹立後 (韓國輿論協會調査)

韓國輿論協會에서는 金呂兩氏의 左右合作交涉에對하야輿論을調査하고저 지난十二日서울 市內通行人7709人에對하야 다음과같은 設問을發하엿다는데 그調査結果는다음과갈다

1 信託論議는政權樹立後에하고우선 左右合作하자는데어떠케생각하는가

絕對贊成	3825	50%
實効가없을것이다	196	2%
몰으겟다	3688	48%

2 三相決定을總體的으로 支持하는原則을세워야한다는데 어떠케생각하는가

託治는千萬不當	2726	35%
託治支持	704	9%
金呂兩氏에게一任	591	7%

求 製粉機械방아간 現在作業中所並讓渡하실분은急通知 京城府東四軒町五〇의二 百花園앞집 洪淳燮

痔疾 서울市瑞麟町七五 光化門金融組合後 東方醫院

女子計算員數名採用 小卒程度滿十六歲以上의希望者는履歷書持參來談 京城驛前朝鮮旅行社南 銀河菓子店

新裝開業 朝鮮料理 明南館 京城府中區明治町二丁目五三

乞期待!(來七月二十日開業) 淸新한冷麥酒와 麗人集團의明朗한 써-비쓰 美莊그릴 京城府茶屋町·美莊그릴一層

가을채종 販賣開始 價格表進呈 信用本位

水原邑 株式會社 富國園 電話水原長三八·一二 振替口座京城二三五五

京城紡織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116의1 電話本局②8125番

(祝長水支局發展)

大韓獨立促成國民會長水郡支部 委員長 柳東彦 副委員長 李滿燮 同 柳寅燮

長水面事務所 面長 柳東彦

長水公立國民學校 校長 白南喆

長水消防團 團長 宋桂晤 副團長 柳東杓 警備部長 徐寧哲 消防部長 金寧錫

柳東彦

柳寅燮

長水精文堂印刷所 主 李圭珢

柳淳亨

林炯淳

柳程熙

隨筆 文學者의 義務

徐廷柱

아시다십히 한사람의文學者의 存在理由는 새로운價値의 創造에 있는것이다 그럼으로 社會主義와 民主主義은 旣成된 한개의社會思潮에對해서는一이것을 追隨하기前에 이것을 正當한尺度로서 把握하고 取捨選擇하는 義務를 갖는것이 文學者의 義務인것이다。 그러고 文學者의尺度라는것은 하로사리의그것이아니라 實로人類千年을 透視하는 明徹한智慧를 根幹으로하는 尺度일것임은 두말할必要도 없을것이다。 一以上이 한사람의文學者의 理解의範圍다 그럼으로 歐羅巴니 露西亞나 唯物 辨證法이나 뭐니한다고 조금도怯낼必要도卑屈해질必要도없다。 모든旣成思想의權威에對한懷疑야말로 文學創造의前提條件임으로써이다。 人類의折半이 그權威압헤屈服하였든 저中世千年의基督敎權의獨裁도 멋사람의知慧로서깨여젓든것을 記憶하라。

○

술이 컥컥 맥이거든。一 그대가 그대의 活動範圍에서 言語行動을하고 다니면서 아무래도 呼吸이 順調를지못하거든 그대는 그대自身을革命해야한다。 그대의呼吸의不自由를 그대自身이 모른체하고 내버려두고 惰性을만든다면 그대는 이미墮落하였다。 文學者가 아니요創造者가 아니다。

○

내보기에는 文化를歐米의意味에서만解釋한다면文藝復興이創定한人間性에代置할 새로운價値는 아직 創造되지않었다。 무엇에追隨하기爲해서우리는 우리의創造個性을버려야한단말이냐。

○

어떠한國家制度가나에게 비록衣食住를保障해준다하여도 萬一나의思考를規定하고 나의散步路를規定하고 나의起臥動作을規定한다면그런데서는 숨이맥혀서 못살것이다。 萬一할수없이 겨기서 살게된다하여도 나의思考와感情은이것을反撥하는데만集中할것이다。

○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네개의單語는陳腐한대로 아직도 充分이 正確한 方法論이다、적으나마 世界보단 먼저 民族을 둔것은 嚴正한數學이다。참말이지 民族文化의構成없이는 世界文化에의參加도作用도있을수는없는것이다。 그러하거늘 요즘은 修身과齊家와治國의三段階는 깜아케 이저버리고 엄청나게도 人類와世界만을問題삼는사람들이 너무나만타

그것은 第一크고 第一偉大한態度같으나 事實인즉 第一虛妄하고 第一浮華한態度인까닭은 그것이 順序와方法을 이저버리고 고무風船처럼 둥둥 떠있는데 있는것이다。

詩 寺村

金達鎭

뒷절에서 올려오는 경쇠 소리에
七月 한나즌 더욱 길었다
되人마루에 그늘은 기픗다。 새로 내온 하얀 골자리。 風化된 난간에 기대안자 우거진 藤덩쿨을 우러러고 있었다。 파리벌 한마리가 圓을 돌고 있었다。
댓벗、정한 香은 뜰안에 아름아름 깜길듯 두눈이 부시었다。 병아리 두세마리 박입 그늘에 조을고있었다。 한떨기 金蓮花一 라는듯 可憐한 한떨기 金蓮花에 햇이 비취일듯一 마음이 부시었다。
참한床一 나찬 童貞女僧이 정성껏 보아온 까만 술상이다。 고사리나물、호박전、오이김치、두부찌짐…가지가지 빗나는 하얀 접시들이여。 나는 혼자서 술잔을 기우렷다。山포도 물든 붉그레한 맑은 술을 혼자서 기우렷다。
술가운 함께
먼 하늘人가로 돌아오는 흰 구름에、
뜰안에 타는 빨간 金蓮花에、
童貞女僧의 살뜰한 情에、
있는듯 없는듯 가ᄂ란 시름에
나는 혼자
취해 가고있었다。 취해가고 있었다。

劇評 『雷雨』를보고

李海浪

일찌 劇藝術硏究會에서 田漢作『湖上의悲劇』을 上演한일이 있고는中國現代劇의獨特한 鬱積한內容의陰陽과脈搏을 우리劇壇에서 볼수없더니 그後十餘年만에 劇團樂浪劇會의 演出로 曺禺氏의 處女作『雷雨』를對하게된것은새로운기쁨이 아닐수없다。

作者曹禺氏는 『雷雨』의一作으로 一躍 田漢、洪深、李建吾等의 巨匠들과 어께를 갈이할수있게되었으며 繼續하여『北京人』『日出』『原野』等의 力作을發表하여 中國戱曲界의 絕頂을 걷고있는사람이다。

『雷雨』는 現代의運命劇이었다。제우스神의 絕對力대신 現代人의情意가 運命의原因이된것이 다를뿐。內容에있어 『오이디푸스王』을 聯想케하는悖德的인것이 動機가되어있오나 그게 洪코猥褻하지않고 作品全體에 흐르는 逼迫한 感情의集積은 꽉째인構成속에서 現代人의苦悶을 示現하고있었다。巧妙히起伏하며 暴露되는무서운事實은 劇中人物을 놀라게햇고 觀客을몸서리나는 深淵속으로 이끌어갓다。

그러나 樂浪劇會의 舞台化에는 原作의 緊迫한 感情을 볼수없는것이遺憾이었고 各人物의性格이模糊하여彈力을 喪失한것이 애석하였다。

演出(李曙鄕)의 簡潔한 手法은 좀더大膽하지못햇스며 性格의內部를底流하는 誠實한情緒의 暗示에充實하지못햇고 또마땅히 舞台에膨脹해야할 힘이缺如되였었다。

金鮮英에게는 周번기의 神經的인 焦燥와 不安이없고 周萍(黃澈)에게는 醜惡한現實에서 離脫하려는 內的苦悶이 안보이며 周樸園(姜晉石)은 內的으로 崩潰되는家庭의 主人으로는 弱하였고 魯侍萍(金陽春)과魯大海(金益煥)는 內容에平行하지않은跨張이 눈에거슬리었으며 周冲(金東園)과魯四鳳(文貞福)은 演技가 單純하고 平面的이어서魅力이없었다。

李夢의 習貫는無難。裝置(鄭純謨)는 燦爛하였으나 原作의뜻과는 乖離된感을못한主調와는 이不無。

그러나 演劇『雷雨』는 解放後 그중볼만한 演劇이였고 또現在까지서볼수있는 最高度의조흔 演劇이였다。

文化消息

▲『우리과學』展覽會 과학국가건설을목표로 국립박물과학관과 조선과학동우회에서는제一회 우리과학전람회를열고저 준비중이다 이회는학생들의동·식·광물암초(岩礁)의표본 자연관찰연구보고 설계·창안품 모형 과학사진 향토보고 조사이외에 사계권위들의 출품이있슬터로 八월一일까지 반입하여 동중순경부터 十일간 국립박물관에서 개최한다

新刊紹介

▲民村(李箕永著) 京城旭町一丁目一八建設出版社發行 定價廿八圓

京城大豫入試問題

國語科

一、다음글에傍線친곳을解釋하여라

(1)온1(或은왼) 世上에는興에 겨워2(게워) 시름3 춤추는이있으며 한숨4 쉬는이도 울품고 있으며萬事가自已 양5에차지아니하여 不平을 가진이도있다 (2)미천6 울잘풀리면 장사는 利7를만히어드며、러전 울집、벼르는8 지위9 는 집을 종요롭게10 지울것이다 (3)西山에日暮한데、전나귀11 모노라니12 어느草堂인지 西出陽關無故人이라 읊는13 소리 어즈버14 나그내의 애를끈15노라

二、다음글을解釋하여라

(1)靑江에、비긋는소리긔무엇이 우읍관대滿山紅綠이 휘드르며 옷는고야두어라 春風이 멋날이리 우을대로우어라(孝宗大王의時調) (2)(가)가지만흔 나무바람 잘날이없다(俗談) (나)소곰에 안전것이 장에절가(俗談) (다)사나운개코등아물날이없다(俗談)

三、다음말을써(用) 短文을하나식지어라

(1)바야흐로 (2)짐짓、(짐즛)

常識試驗 (모든解答은二、三行以內로簡單히쓰라)

一、우리나라文化에서 가장자랑할만한것 세가지를쓰라

二、民主主義란무엇인가

三、左에對하야쓰라 1、安全保障理事會 2、운라財團 3、CIC 4、信託統治 5、알라會談

四、左의人物에對하야쓰라 1、번즈(或은번스) 2、安重根 3、毛澤東 4、아이젠하워 5、모로토프

五、左記地名에對하야아는것과各所在地를쓰라 1、威化島 2、트리에스트 3、에르살렘 4、閑山島 5、켐부릿지

地方短信

푼푼貯蓄한 一萬圓 鄕土中學校設立에寄附

【陜川】경남 협천군율곡면 노양리(魯陽里)五九八번지 문(文)여사(四九)는 푼푼근검저축하야모흔 현금一만원을 당지협천중학교설립기성회에 자진기부하였다

家族六名溺死

【竹山】안성군이죽면장운리에서는 지난二十五일홍수로일가족八명중六명이익사하였다

美國獨立紀念式盛況

【議政府】七월四일 미국독립기념일을마저양주(楊州)군에서는 엄숙하고성대한 기념식전을개최하고 아어주둔미군의 위안회를 개최하였다

人委會와農民組解散

【漆谷】칠곡(漆谷)인민위원회와 농민조합에서는 지난二十일 해산식을거행하였다

勸農隊出動

【寶城】전남보성군 목립축성청년연맹에서는 지난달부터 독립축성권농대를 조직하고 군내각농촌으로 대원四十여명이나아가 보리도비고 모를내어 노동력부족을 덜하게하는등 실천활동으로 청년운동의갈길을 밝히고있다

三中等校昇格期成會를組織

【尙州】경북상주군에서는 상주농잠 상주농업 상주실과녀학교등 세학교승격기성회를조직하고 다음과같이 승격운동을하기로 결의하였다 상주농잠학교는 잠사단과대학으로 상주농업은고등중학으로 상주실과녀학교는 고등녀학교로 승격운동을하기로 되었다

國民校建築에十萬圓

【天安】천안군이규봉(李圭鳳)씨는 이번에동군제二국민학교건축에 사재十萬圓을기부하였다

水害民만一萬五千 救濟品遝至에郡民感激

【平澤支局】이번폭우로 경기도내에서 제一피해가심하엿든 평택지방은 그後조사에나타난 수자에의하면 침수가옥三천호 파괴가옥一천五백호 사망자三十명 행방불명七十명 이재민一만五천명、읍내엇는데 방금각지로부터 구제품이들어오고있서 당지이재민들은 감격하고있다

忠州도물바다 浸水家屋만八百八十

【忠州】이번수해로말미아마 충주읍침수가옥一백八十六호 매몰가옥一백六호 리재민七백여명 행방불명十三명 사망자六명을내이고 더욱안림리(安林里) 제방이터저 동촌(東村)은물바다를 일우어농작물에큰타격을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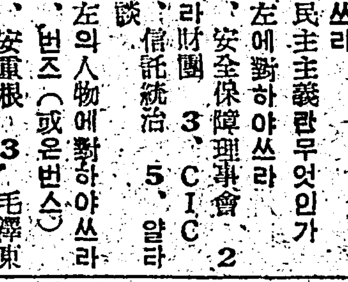
康津에도 호열자는 死亡者만벌서十名

【康津特電】강진의호열자 환자발생은 十七명인데그중사망자가十명이라고한다

호열자尤甚 患者五百八十七名 死者二百九十八名

【金堤】군후생계발표에의하면 九일현재로군내호열자 환자는五백八十七명인데 그동안의사망자는 二백九十八명의다수에달하여 일반의적극적방역을 요망하고있다

美國콜럼비아社作 케一리一쿠一빠·지一니·아一사主演
오페라헬
18日一22日 서울劇場


가을씨앗 秋播子 나왓다
서울鍾路四丁目九 東洋農園 電話東三三四番

內部新粧完備 親切本位·淸新料理
中華高等料理 悅賓樓
美妓指名歡迎
漢城市鍾路區樂園町一三二 電話光化門③七四二番

金銀 白金
三一
漢城市鍾路二丁目一番地 電本三〇二五·七〇八

滿員謝禮 白民樂劇團 夏期初公演
李雲芳作 朴雲鶴脚色·演出
朝鮮의어머니
『紅桃야울지마라』에紅桃로大人氣를끈 秋順伊孃이이번은『어머니』로大熱演! 特別出演 李寅權 韓桂龍

權五燮과그樂團演奏 一바라이에티一 希望의꽃다발 15景
13日부터 第一劇場

劇團 獨立劇場 公演
林仙圭作 紅開花演出 金雲善裝置 車旭照明
애비없는子息 四幕五場
花柳哀話 絕讚! 滿員謝禮
7月18日까지 東洋劇場

劇團 靑春劇場 第十六回公演
며누리 家庭悲劇 四막五장
李雲芳作 金春光演出 金雲善裝置
中等學校以下生徒는入場謝絕함
어린이를위하야、남편을위하야、시어머니를위하야 가지악전고투하는貞烈夫人
16日부터晝夜二回 團成社에서

美國映畫戀愛探偵劇
유니바살巨作品
그대와 하로밤을
리차도·소一푸 監督 크라라·보一 主演
15日부터19日까지 長安劇場

鎌(왜낫) 鋼板製
大量生産製造販賣
製造元 朝鮮鐵工株式會社 京城府龍山區元町二丁目一一七番地
社長 姜喜淳 電話龍山⑩二三六一番
△特約販賣店募集